기아차 광주공장 노사 봉고트럭 증산 합의

시간당 2대씩 더 생산…연간 11만대로

주문 적체 해소하고 62만대 증산 가속

지난 9일 본격 증산합의를 이룬 기아차 광주 3공장 봉고트럭 생산라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가 지난 3년간 결론 맺지 못했던 3공장 봉고트럭 증산협의를 지난 9일 타결했다. 이에 따라 봉고트럭 생산량은 연간 최대 11만대까지 늘게 돼 적체물량 해소 및 광주공장 생산량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노사는 9일 봉고트럭의 UPH(Unit per Hour·시간당 생산대수)를 기존 23.1UPH에서 25.1UPH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직 광주공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아차는 봉고트럭이 2UPH, 즉 1시간에 2대를 더 생산하게 되면 연간 8000여대 가량의 물량이 더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봉고트럭이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해는 광주공장 노조가 무분규로 생산을 진행했던 2011년으로 10만1098대를 생산했다. 파업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9만7734대에 그쳤다. 분규 없이 정상가동될 경우 사상 최대인 11만대 생산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

증산합의에 따라 서민경제의 축인 봉고트럭의 적체현상은 당장 개선될 전망이다.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그동안 봉고트럭을 주문하고도 차 인도 시까지 3개월 가량 기다려야 했던 고객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30%에 이르던 해약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아차 측은 내다봤다.

기아차 관계자는 "광주공장 노사가 새해를 맞아 봉고트럭 물량지체 현상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이후 노사가 수 차례의 협의에 적극 임해 전격적으로 봉고트럭 증산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2013년 6월 광주 2공장 증산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던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도 3공장 봉고트럭 증산이 합의됨에 따라 완전한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6월 2공장 증산 노사협의를 완료해 사실상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지만, 애초 62만대 증산에 포함됐던 3공장 봉고트럭 증산문제는 해를 넘겨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봉고트럭 라인은 현재 2만여대의 주문이 밀려있을 만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3년 넘게 특근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존 생산대수로는 적체물량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해 회사 측은 그동안 봉고트럭 증산을 계속 추진했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 초비상인데…

LH광주전남본부 사옥 안팔려 울상

덩치 커 5년째 매각 못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450억원에 이르는 자사 사옥을 5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감소를 꾸준히 압박하고 있어 올해 매각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12일 LH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당시 주공 광주전남본부 사옥이 통합사옥으로 선정됐다.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토공 광주전남본부 사옥은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매각 대상이 됐다.

이 사옥은 지상 13층, 지하 2층, 건물면적 2만1000㎡ 규모로, 매각가는 455억882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아 임대된 7~9층, 12층 등 4개층을 제외한 전체 건물이 사실상 빈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관공서와 공공기관, 기업 등은 물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수차례 매각 노력을 기울였지만 높은 매매가와 큰 건물 덩치 탓에 매각이 쉽지 않았다"며 "올해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럭키 박스' 행사 12일 광주신세계가 새해를 맞아 준비한 '럭키박스 행사'에 고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백화점 1층 시민광장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당일 3만원 이상 영수증을 소지한 선착순 500명의 고객에게 포춘쿠키를 증정, 극세사 침구세트를 비롯해 트라이엄프 내복 등 선물을 제공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업 76% "올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

통상임금 등 현안 산적…3년내 최악 전망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회원사 232곳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76.3%가 '작년보다 더 불안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실시된 동종의 조사에서 이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률(42.7%)보다 33.6%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역대 조사와 비교하면 88%를 기록한 2010년 이후로 가장 높다.

회원사들 중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1.1%,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통상임금 문제 등 노사관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짝수해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경총 측은 분석했다.

응답 기업들은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한 분야로 '공공 및 공무원'(18.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기업 및 공기업 협력업체'(16.4%)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20.2%)를 지목한 경우가 많았다.

또 응답 기업의 57.9%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해결 과제로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했고 '정치쟁점화 차단'(25.4%)이나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8.8%) 등을 거론한 기업도 있었다. /연합뉴스

2~4월 전국 아파트 5만2000가구 입주

작년 동기비 44.4% 늘어

국토교통부는 2~4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집계한 결과 작년 같은 시기와 견줘 44.4% 증가한 5만2222가구(조합원 물량 제외)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월별로는 2월 2만712가구, 3월 1만5596가구, 4월 1만5914가구다.

지역별 물량을 보면 서울(5904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이 1만9076가구, 지방이 3만3146가구였다.

수도권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9.4% 줄었지만 서울은 천왕2지구, 세곡2지구(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작년보다 22.8% 증가했다.

지방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대전·경남·전남 등)를 중심으로 민간 물량이 늘면서 작년 같은 때보다 119.5%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모든 규모의 아파트가 수도권보다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형 주택(60~85㎡)이 작년 같은 때 대비 410.8%나 증가한 2만2050가구로 집계됐다.

공급 주체별로는 공공 아파트가 1만2901가구, 민간 아파트가 3만9321가구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8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7	9	11	32	35	3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028,610,500	7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56,350,292	42
3	5개 숫자 일치	1,421,449	1,665
4	4개 숫자 일치	50,000	86,352
5	3개 숫자 일치	5,000	1,401,162

전남농어촌공사 조직개편후 첫 업무보고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가 지난 10일 조직개편 후 첫 업무보고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월1일자로 본사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농어업 환경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기존 5팀의 본부조직을 현장부서 6부체제로 전환했다. 수자원의 종합관리를 위해 기반관리팀을 농업시설물관리에 집중하는 '기반관리부'와 재해대응 등 수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자원관리부'로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환경사업팀을 '지하수지질부'로 개편해, 사업추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영산강권역 미래형 복합영농단지의 조기 착공과 영광 불갑제 치수증대 사업지구 지정 노력 등 광주전남지역 농업환경개선과 어업인의 소득복지 증대를 위한 전문가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행윤 본부장은 "지난해보다 더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더욱 친화적인 기업으로 다가서는 한편, 이번 본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창의적 전문성 확보와 건전성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글로벌 일등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얼굴

"수출기업 무역연수 등 실질 지원"

조윤재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새로 취임한 조윤재(50) 본부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무역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해 해외마케팅과 무역연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평 출신인 조 본부장은 지난 1990년 한국무역협회 입사 뒤 산업진흥과, 기획조정실 기획팀, 감사실, e-Biz본부 IT전략실을 거쳐 2012년부터 무역진흥본부 정책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